

그 후 후손들에게 아무런 해(害)가 없었으므로 그 중을 푯중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제19절 사계1리(沙溪一里)[속명 : 사기막(沙器幕)]

1. 마을의 자연환경

쇠치봉(鼎峙峯)의 남쪽 지맥(支脈)인 해발 220m 규모의 산두치(山頭峙)에서 동쪽으로 산맥(山脈)이 뻗어 분지(盆地)를 이루고, 쇠치봉(鼎峙峯)에서 발원(發源)한 시냇물이 마을 동쪽을 거쳐 작은 들을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 흐르는 내(川)가 울진읍 정림2리 다리골과 경계를 이룬다. 동쪽은 삼각점(三角點)이 있는 앞산(山)이다. 서쪽으로는 ‘산두목재’를 경계로 정림1리와 접하고, 서북쪽으로는 ‘숫도가거리’를 경계로 사계2리와 닿아있다. 또 북쪽으로는 ‘태봉재’를 사이에 두고 소곡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8년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예로부터 사기막(沙器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마을로 토기(土器)와 질그릇의 잔해(殘骸)들이 마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자기(磁器)를 굽던 때는 고려 때라고 전해지고 있다. 사계(沙溪)마을은 순흥 안씨(順興安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거제 반씨(巨濟潘氏) 등의 선조들이 1300년경부터 이곳에 입주(入住)하여 늪을 개척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며 평지(平地)마을, 평지마, 양지마[골마을], 잣마을 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1) 구렁마을

골(谷)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2) 잣마을

마을 위쪽에 있는 반(潘)씨의 집성촌(集姓村)으로 울진에 거주하는 반씨(潘氏)의 중심촌(中心村)이다.

3) 평지(平地)마

마을이 평지(平地)에 있다 하여 평지마을이라 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모여 사는 마을이다.

3. 가구 분포

총 33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거제 반씨(巨濟潘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가암 전원식 선생 유허비

사기막골의 동남쪽인 명도리로 나가는 군도의 오른쪽 산기슭에 울진지방의 마지막 기호 학파 학풍을 이은 유학자인 가암(柯菴) 전원식(田元植) 선생의 유허비가 있다.

2) 남씨(南氏) 묘(墓)

사계리(沙溪里)에 사는 영양 남씨(英陽南氏) 낙향조(落鄉祖)의 묘(墓)로, 노송(老松)이 우거진 평지마을 뒤에 자리한 만고불폐(萬古不廢)의 명당이라 한다.

3) 큰묘(墓)

평지(平地)마을 내룡(來龍)에 큰 묘(墓)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양자리(陽子里) 이씨(李氏) 묘라고 한다. 소(牛), 개(犬) 등의 가축(家畜)이 분뇨(糞尿)를 하지 않으며, 벌초(伐草)를 하지 않아도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아 명당으로 전한다.

제20절 사계2리(沙溪二里)[속명 : 무쇠골]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돌산 등(嶺)과 옴앞들이 있고 서북으로 쇠치봉(鼎峙峯)이 솟아있으며, 남쪽은 사계1리(沙溪一里), 나그네재, 하당리(下塘里)와 접한다. 북쪽으로는 대왕산(大王山)을 경계로 소곡2리와 닿아있고, 남쪽으로는 에잉골을 경계로 사계1리와 만나고, 서쪽으로는 주노골을 경계로 덕구1리와 닿아있다. 서쪽으로는 나그네재를 경계로 하당리와 연결해 있다. 동쪽으로는 박금천이 흐르며 마을 앞을 흐르는 내는 재말천이다. 마을의 주산은 쇠치봉이며, 상당리와 경계를 이룬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